

레닌主義의 理想과 現實*

—北韓體制의 變化展望—

李 相 禹

1. 序 : 政治 이데올로기의 生滅
2. 社會主義의 特殊形態로서의 레닌주의
3. 矯角殺牛의 사회주의로서의 主體思想
4. 北韓體制의 變化展望
5. 結論

1. 序 : 政治 이데올로기의 生滅

사람은 오늘에 살지만 내일을 바라고 산다. 未來에 대한 꿈과 期待는 오늘의 苦難을 이기게 해 주는 原動力이다. 사람들은 現實에 대한 不滿을 未來의 希望으로 달랜다. 現實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不滿이 크면 클수록 未來에 거는 기대도 커진다. 오늘의 恨을 내일에 풀겠다는 인간의 所望을 바탕으로 그려내 놓은 未來의 비전중에서 實現可能性을 보여주는 논리를 덧붙인 체계화된 행위체계가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政治이데올로기는 그런 뜻에서 오늘의 기대를 미래에 投影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政治이데올로기의 生成은 現實不滿에 대한 抵抗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이 抵抗的 要素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다.

政治이데올로기의 호소력은 강한 現實否定에서 생겨난다. 政治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未來像이 現實과 거리가 멀수록 그 호소력은 커지고 現實否定의 強度가 높을수록 支持度도 높아진다. 그리고 기대하는 未來像과 現實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1會議에서 主題發表한 것임.

사이를 잇는 理論體系가 단순할수록 사람들은 쉽게 동조하며 그 未來像 실천을 위해 행하여야 할 行動이 간단할 수록 그 이데올로기는 강한 實踐力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搾取없는 平等社會”라든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社會”라는 구호는 勞動搾取에 허덕이는 육체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강한 호소력을 갖는 未來像이며, “私有財產制의 撤廢”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소박한 논리와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주도하는 革命”을 통하여 “階級獨裁體制”를 구축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간단한 處方은 노동자들의 支持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아주 效果의 일 수 밖에 없다.

抵抗이데올로기로 生成된 政治理念의 문제는 抵抗의 對象이 除去되었을 때부터 생긴다. 지시한 處方대로 행동하여 꿈을 실천할 수 있는 狀況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부터는 抵抗을 유도하던 그 政治이데올로기가 바로 政權擔當者의 體制管理理念이 되며, 약속했던 꿈의 實現책임은 革命의 勝者에게 돌아가는데, 非現實의이고 實現不可能한 꿈을 그들은 實現할 수 없기 때문에 支持해 주던 人民을 만족시킬 수 없어 革命主導者가 또다시 抵抗의 對象이 되게 마련이다. 抵抗이데올로기는 그 주창자들이 승리하는 순간에 反動化되며 이데올로기로서의 生命을 잃게 된다. 이것이 抵抗이데올로기의 一般의인 生滅史이다.

인간의 삶의 條件은 끝없이 변한다. 時代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기술은 發展하게 되고 이에 따라 要求되는 人間노력이 달라지고 또한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도 달라진다. 달라진 條件에서 인간 所望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한 時代, 한 地域에서 生成된 政治이데올로기가 超時代的으로 그리고 超地域的으로 通用될 수는 없다. 政治이데올로기가 硬直化되면 時代潮流속에서 反動化될 수 밖에 없다. 19세기의 英國社會에서 妥當性을 가졌던 주장들이 20세기말의 中國社會에서 같은 妥當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狀況變化에 적응할 수 없는 敎條化된 理念體系는 時代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불변이라고 간주하여야 할 本性的인 要素가 있는

가 하면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可變的인 要素가 있다. 인간의 本性은 不變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慾望도 不變이다. 인간의 利己心, 自己保全本能, 잘 먹고, 잘 입고 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 등은 모두 不變要素이다. 이에 비하여 인간의 成就목표는 변할 수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 순위 1位의 目標가 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한 상황에 이르면 더이상 먹을 것을 구하는데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政治이데올로기가 不變的 要素를 바탕으로 하여 융통성있게 目標를 추구할 수 있는 條件 성취를 目標로 삼아 구성될 경우에는 그 생명이 오래간다. 반대로 특수상황에서의 目標成就를 目標로 삼는 政治이데올로기는 그 생명은 짧을 수 밖에 없다. 먹을 것의 고른 분배 그 自體를 目標로 하는 政治이데올로기는 먹을 것이 풍요해지는 상황에서는 그 생명을 잃게 된다. 20세기 初半까지 설득력을 가졌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구호들이 20세기 後半에 이르러 급속히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이유가 있다. 20세기에 이루어 놓은 人間의 과학기술혁명이 人間의 삶의 條件을 급속하게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인류문명이 시작되어서부터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항상 궁핍한 상황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인간의 社會生活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자라는 물질을 분배하는 방식이 되어왔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이 政治의 핵심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진행되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 요구가 제한없이 충족되는 시대가 온다면 政治의 課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궁핍시대의 관심과 풍요시대의 인간관심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레닌主義는 지난 70년간 가장 효과적인 政治이데올로기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끼쳐 왔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시대에 곤궁 해결에 주된 역점을 두고 구성했던 레닌주의가 설득력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 레닌주의가 설득력을 가지던 상황은 20세기말에 이르러 급속히 사라

져 가고 있다.

대체로 위와 같은 基本的 認識을 전제로 社會主義의 특수형태로서의 레닌주의가 안고 있는 오늘의 問題를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未來展望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는 討論의 범위를 北韓의 레닌주의, 즉 主體思想에 限定하고자 한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分析이 레닌주의의 一般에 대해서도 妥當하리라고 본다.

2. 社會主義의 特殊形態로서의 레닌주의

사람들의 현실인식은 본성, 삶의 條件, 친숙한 文化 등에 따라 형성되는 基本的 認識들(basic frame of perception)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이 모두 다른 만큼 현실인식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便宜上 다양한 認識들을 단순화하여 分類해 볼 수 있다.

우선 個個人間과 人間集團으로서의 社會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크게 自由主義의 世界觀과 全體主義의 世界觀 등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自由主義者의 견해는 간단하다. 인간 개개인 모두는 자기완성적인 존재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자기의 고유한 所望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은 각자의 利益의 增大를 위해서 他人과 協力하며 그 協力の 편의를 위해 社會라는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一次的의 의미를 가지며 社會는 個人을 위해 존재하는 副次的의 존재라고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全體主義的의 시각은 판이하다. 인간은 개미나 벌처럼 본성적으로 “社會的 動物”이며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類의 存在”이다. 社會는 하나의 有機體의 성격을 지닌 존재이며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다. 개인은 이 유기체적인 사회의 한 부분이며, 주어진 役割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全體로서의 社會가 발전할 때 부분으로서의 개인도 발전한다. 개인의 利益은 全體集團의 이익의 反射物이다. 개인은 집단과의 「바른관계」를 가

질 때, 자유스러워진다. 自由란 집단의 규제로부터의 개인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적 요구에 제대로 응할 때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全體主義 世界觀을 가지게 되면 집단의 存在가 우선이고 개인은 이에 종속되게 된다.

집단의 意思決定에 대해서도 對立되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專制主義의 견해와 民主主義의 견해이다. 인간의 능력은 모두 다르며 따라서 가장 우수한 자의 제약없는 意思決定이 전체집단의 의사가 될 때,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統治者가 오직 자기에게만 책임지고 결정을 하는 專制主義(autocracy)가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개개인의 의사가 집단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主權在民”思想이 그것이다. 다만 個人마다 다른 견해를 타협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自由 民主主義의 견해와 個個人의 견해를 統計의 方法으로 수렴하여 眞理를 발견하여 집단의 의사로 해야 한다는 新民主主義 또는 科學的 民主主義를 주장하는자들의 民主集中制 방식을 선호하는 견해가 있다. 自由主義者들이 自由民主主義를 선호하고 全體主義者들이 專制主義 또는 民主集中制의 新民主主義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論理的 歸結이다.

개인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에 있어서 一定 조건아래 각자가 自律的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社會가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즉, 私를 앞세우는 견해와 公을 앞세우는 견해가 있다. 社會主義는 公을 앞세우고 집단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資本主義는 契約自由의 원칙과 私有財產絕對의 원칙을 바탕으로 自律的 해결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自由主義者들이 선호하는 經濟的 이데올로기가 資本主義이고 全體主義者들이 社會主義를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착취가 없는 사회”를 理想으로 하는 民主社會主義者들은 自由主義와 社會主義의 결합을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民主主義에 의한 集團意思결정만 가능하다면 공을 앞세우는 社會主義가 더 自由主義 실현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¹⁾

社會主義者들의 꿈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자유로운 인간 사회”의 건설이며 이를 위해 物質的 요소를 집단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最上의 목표상태를 “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질서”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社會에 속하는 他人을 “나의 延長”, 즉 확대된 自己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 부모가 자기자식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나의 延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은 가장 완벽한 社會主義社會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로 일을 물질적 보상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자세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지게 되면 역시 社會主義의 꿈은 쉽게 실현될 수 있다. 남을 위한 일이 착취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社會主義의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條件들은 현실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社會主義의 현실적 제약이다. 인간의 本性은 利己의이다. 인간은 “내것”과 “우리것”을 정확히 구분하며 “내것”을 우선하고 “우리것”을 희생시키려 한다.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희생하나, “우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즉 사회구성원 일반을 “나의 延長”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 本性이다. 또한 풍요로운 사회가 아닌 결핍의 사회에서는 일을 물질적 對價와 분리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독자적 행위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1) 民主社會主義者들의 주장을 宣稱化한 1951년의 Frankfurt 宣言 第1章 第2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自由없이는 社會主義는 있을 수 없다. 社會主義는 民主主義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社會主義의 꿈의 실현은 쉽지않다.

社會主義를 制度的으로 強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生産關係 矛盾”의 해결에는 공헌하나 “生産力 矛盾”, 즉 “生産力 增大”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모든것이 공이고 私를 배제하면 分配의 均等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共同작업에서는 生産力增大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創意力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人間性を 훈련을 통해 “利他的”으로 改造할 수 없는가? 中國 共產黨이 10년간에 걸쳐 실시했던 文化革命은 바로 이러한 人間性 改造作業이었는데 결과는 아주 否定的이었다. 改造가 不可能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制度를 위한 人間改造는 「人間을 위한 制度」라는 社會主義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社會主義의 實現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어 왔다. 그 하나는 議會主義를 통하여 民主的 方法으로 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점진적, 進化的 方法이고, 또 하나는 革命을 통하여 社會主義制度를 직접 채택하는 방법이다. 西歐의 社會主義者들은 民主主義의 실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社會主義를 실현해 왔다. 이에 비해 소련에서는 革命을 통하여 극단의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고 폭력과 強權으로 이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이 두번째 방식을 지도해 온 政治이데올로기가 레닌주의이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와 專制主義의 結合이다. 無產階級에 의한 革命을 통하여 社會主義體制를 도입하고, 無產階級の 獨裁라는 專制的 統治方式으로 이를 유지해 간다는 주장이 바로 레닌주의의 핵심이다.

레닌주의는 필연적으로 엘리트主義로 변질하게 되어 있다. 社會 구성원の一部만이 專制的 支配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구성원이 지지하지 않는 社會主義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無產者의 속성상 그들의 民主參與로 집단 의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교육수준을 생각하면 이것이 非現實의임을 알 수 있다. 레닌주의는 필연적으로 支配집단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들로 구성된 정당을 앞세워 一黨支配體制

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레닌주의는 결국 社會主義를 위한 專制的 엘리트主義로 변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를 종식시키겠다던 社會主義를 “일부人間이 가장 철저하게 다른人間을 지배하는” 社會主義로 만들어 버린 歷史的 逆說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레닌주의의 붕괴는 宿命的이었다. 20세기 後半에 이르러 엘리트主義의 專制主義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오랜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더 이상 體制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세계였다. 특히 科學技術의 폭발적인 발전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뿌리부터 변질시켜 놓았다. 交通, 通信의 발전과 教育水準의 향상으로 이제 사회구성원 거의 모두가 “意識이 깨어난 主權者”로 변하여 엘리트 專制主義體制의 유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렵게 되었다. 民主化의 거센 조류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된 것이다.

社會主義經濟體制의 非效率性으로는 사람들의 날로 증대하는 물질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한 상황과 대비할 때 국민들의 相對的 박탈감을 해소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인간의 利己의 動機와 優勝劣敗의 원칙이 함께 작용하는 資本主義經濟體制는 산업에서 技術과 管理能力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그 效率性이 높아져 가게 되어 있어 社會主義體制로는 추종할 수 없게 되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시작된 蘇聯의 改革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自救努力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에서의 엘리트 專制政治를 多元主義 民主主義體制로 전환하는 것, 國家統制의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로 개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한마디로 레닌주의의 포기를 뜻하는 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3. 矯角殺牛의 사회주의로서의 主體思想

北韓共產體制는 自生的인 것이 아니라 蘇聯占領軍에 의하여 強制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受容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日本 植民地에서 解放된 北韓은 아주 가난하고 또한 平均的으로 教育수준이 아주 낮은 주민이 살고 있던 産業化以前의 농업사회였다. 이곳에는 가난한 농부를 착취할 大地主도 없었으며 인민을 착취하는 부르조아지계급도 없었다.²⁾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社會主義體制를 도입한 것이다.

북한은 人民階級の 敵을 찾기 위하여 南半部解放論을 발전시켰다. 즉, 南韓은 民族社會의 일부이며 남쪽에 있는 人民의 敵이 곧 階級的 敵이라고 階級鬭爭의 目標을 남쪽의 “부르조아지 階級”에 두었다. 또한 專制政治의 정당화를 위하여 革命過度期論을 발전시켰다. 남반부를 미국제국주의자들로 부터 해방하고, 나아가서 남쪽의 人民階級을 해방할 때까지는 勞動당에 의한 1당獨재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서 「首領論」을 내세워 엘리트층의 극치인 1人支配體制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³⁾

북한이 내세우는 主體思想은 이른바 “우리식의 社會主義”이다. 북한은 1950년대 後半에 中蘇理念紛爭에서 超然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金日成 主體思想”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蘇聯과 東유럽에서 레닌주의가 속속 허물어져감에 따라 한 발 더 나아가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른 “우리식 특유의 社

2) 解放 당시의 韓國民의 1人當 GNP는 1975년의 달러貨로 환산할 때 약 78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北韓의 경우 대부분의 地主는 日人이었으며 나머지 韓國人地主도 蘇聯軍 점령하에서 거의 모두 美軍占領地였던 南半部로 移住하였었다.

3) 北韓의 體制指導理念으로서의 金日成主體思想의 變質과정에 대해서는 本人의 著, 「韓國의 安保環境」 제 2집(중보판)(서울:西江大出版社, 1986)의 제 21장, 22장 및 23장 pp. 369-432를 참조할 것.

會主義”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⁴⁾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의 효과적 실천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의 계급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社會主義와 무관한 一黨獨裁體制로 전락했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社會主義 그 자체보다도 社會主義 실천수단으로서의 1인 지배의 專制政治體制가 그 본질적 내용으로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專制政治의 효과적 실천을 위하여 社會를 다시 계층화, 계급화함으로써 새로운 階級社會를 만들어 놓았다.⁵⁾ 결국은 金日成主體思想은 矯角殺牛의 典型, 즉 本과 末을 뒤집어 놓은 가장 두드러지는 逆說로 귀착하고 만 셈이다.

北韓의 現體制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며 또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社會主義國家”도 아니고 “階級없는 평등사회”도 아니다. 北韓政治體制는 典型에 가까운 全體主義국가이며 一人支配의 神政的 專制국가이고 국가독점의 변형된 資本主義體制가 되었다.⁶⁾

4. 北韓體制의 變化展望

北韓의 政治體制는 극단으로 발전한 레닌主義體制이다. 레닌주의에서의 一黨支配體制를 한층 더 엘리트化하여 一人支配體制로 발전시킨 體制이

4) 1991년 8월 1일에 행한 김일성의 담화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주목할 만하다. 이 담화문에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선언하고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올려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계급투쟁을 상대화시켰으며 또한 같은달 일본의원방문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社會主義는 소련식도 아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닌 “우리식의 社會主義”라고 주장하면서 국제공산주의 연대를 처음으로 부인하였다. 또한 1991년 9월 15일 중앙방송에서 國民戰담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다”를 인용하면서 북한체제와 소련체제가 무관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전통 레닌주의와의 단절을 암시하는 중요한 시사라고 해석된다.

5) 북한의 階級構造는 아주 정교하다. 모두 51個階級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급구조표는 月刊朝鮮 編, 黃民基 譯, [北朝鮮: その衝撃の實像] (동경: 講談社, 1991), pp. 527-531에 수록되어 있다.

6) 北韓現體制特性에 대해서는 本人이 編著한 [北韓40年] (서울: 乙酉文化社, 1988)에 수록된 本人의 논문, “金日成體制의 特質”, pp. 11-30을 참조할 것.

다. 그리고 그 支配의 근거를 支配者의 超人的 能力 즉, 神性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神政體制라 할 수 있다.

金日成 一人支配體制에서는 統治權 승계란 있을 수 없다. 다만 金日成의 血統을 잇는 者가 金日成의 權威에 의지하여 앞으로 계속 統治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金日成의 長子인 金正日이 앞으로 統治者가 된다는 뜻은 金日成을 승계한다는 뜻이 아니고, 絕對者 金日成의 이름으로 金正日이 統治權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金日成 死後의 政治體制도 근본적으로 變化하지 않을 것이다. 金日成은 죽은 후에도 계속 絕對者로 君臨할 것이기 때문이다.

金日成 一人支配體制의 管理者는 로동당 간부층이다. 이들은 教會에서의 司祭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權威는 金日成의 權威에서 나온 것이지 人民의 委任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特權層으로서의 이들 支配集團은 現體制가 보장하는 모든 特權을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現體制維持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者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現存의 神政體制를 固守하려 할 것은 명백하다.

레닌주의는 蘇聯에서만 限界에 부딪힌 것이 아니다. 東유럽, 中國, 北韓 등 모든 레닌주의 國家에서도 똑같이 限界에 부딪히고 있다. 蘇聯과 東유럽 레닌주의 國家에서는 自救의 노력을 펴서 脫 레닌주의 改革을 斷行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에서는 왜 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社會條件이 다르기 때문에 政治改革을 留保하고 經濟改革만을 한다는 이른바 「政經分離」의 「中國式 改革」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中國과 北韓의 경우, 共產化 以前 狀態가 東유럽과 다르다. 東유럽 國家들은 近代國家의 경험을 가진 나라이며 社會 속에 각종 自律조직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다. 특히 모두 國教로 되어 있던 天主教 및 회랍正敎의 강력한 教會조직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不滿을 가진 人民들이 集團의 抵抗을 할 수 있다. 이러한 自律조직이 求心點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中國과 北韓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共產化以前에는 近代國家의 체험이 별로 축적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發展된 社會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體制에 不滿을 가진 人民들의 저항을 集團化시켜줄 求心點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中國과 北韓은 社會의 일부만이 共產化되었기 때문에 社會의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 非共產지역으로 이동하여 抵抗세력을 이끌 지도자를 남겨놓지 못했다.

中國은 一黨支配體制를 계속 강화하면서 오직 經濟體制만을 改革하여 非效率的인 社會主義經濟體制를 效率的인 市場經濟體制로 代替하려 하고 있다. 中國은 1978년에 이러한 改革을 시작한 이후 1989년의 天安門事件 등을 겪기는 했으나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經濟的 與件이 많이 向上되고 있다.

中國式 改革은 결국 레닌주의에서 社會主義와 專制主義 要素를 분리하여 社會主義를 버리고 專制主義만을 固守하겠다는 이데올로기 轉換을 뜻한다. 즉, “社會主義를 위한 專制政治”에서 “社會主義와 관계없는 專制主義”로 思想轉換을 한 셈이다.

북한은 다른 레닌주의 國家와 달리 最後까지 레닌주의를 지켜왔다. 이제 사실상 全世界의 唯一한 레닌주의 國家로 남았다. 그러나 北韓은 더 이상 레닌주의를 지켜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經濟的 與件이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이다. 경쟁상대인 南韓에 비해 GNP 규모에서 10分之 1 수준으로 落後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3.7%의 成長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나아가면 北韓은 수년내에 국가로 殘存하기 어렵게 된다.⁷⁾

北韓이 蘇聯式의 全面的 體制改革을 단행할 것이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現在의 北韓支配階層은 金日成一人支配體制 유지를 위해 너무 많은 殺傷을 했으므로 支配權限을 내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 支配權 상실은 곧 스스

7) 北韓經濟의 실상에 대하여서는 다음 글을 볼 것. 延河清, “北韓의 開放展望과 南北韓 經濟協力”(서울: 大統領諮問 21세기 委員會, 1991. 8.) 및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1991. 8.)를 볼 것. 1990년 기준 北韓의 GNP는 231억달러이었으며, 같은 해의 韓國의 GNP는 2,379억달러이었다.

로의 생명의 상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支配階層 스스로의 결단으로 民主的政治改革을 시도하리라는 기대는 어렵다. 이러한 事情은 金日成 이후, 그리고 金正日 이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北韓이 擇할 수 있는 改革路線으로는 결국 中國式 改革뿐이다. 日本 등 先進國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여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여 노동집약적인 商品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初期段階의 産業化를 다시 시작하여 현재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唯一의 脫出口로 될 것이다.⁸⁾

그러나 輸出主導의 經濟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經濟體制改革이 불가피 해지고,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는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北韓에서도 中國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를 위한 專制政治”가 “社會主義를 버린 專制主義”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全世界的인 民主化 추세의 潮流 속에서 專制政治體制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北韓 當局은 外部世界로부터 自國民을 격리하는 閉鎖政策을 強化할 수 밖에 없다. 현재 北韓은 거의 완벽하게 人民과 外部世界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的 國際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젠까지나 人民을 外部세계로부터 격리할 수는 없다. 北韓政治體制의 효율적인 統制能力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언젠가는 北韓에서도 政治民主化의 강한 要求가 表出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北韓은 최후의 레닌주의 국가로 당분간 남았다가 마지막으로 民主改革을 겪게 될 것이다. 다만 그동안은 [開發獨裁]라 부르는 國家資本主義의 專制主義國家로 잔존할 것이다.

8) 北韓이 日本등으로부터 經濟協力을 얻어 經濟的 난국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Rhee Sang-Woo, "North Korea in 1990: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January 1991, pp. 71-78. 그리고 北韓과 日本간의 經濟協力史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玉城素, "日本の對北韓 經濟協力", KDI주최,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국제회의, 1991. 9. 30. -10. 1., 서울에서 발표된 논문을 볼 것.

5. 結 論

레닌주의는 20세기 초의 時代的 環境에서 태어난 특수 政治이데올로기였으며, 그 理念體系는 약 70년간 세계를 풍미하다가 20세기 末에 와서 時代的 潮流 속에서 消滅되고 있다. 社會主義와 專制主義의 結合으로서의 레닌주의는 産業化 初期段階에서 강력한 動員能力으로 노동의 量을 대량으로 産業에 투입함으로써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나, 産業技術이 高度화된 20세기 末에 이르러 노동의 量이 아닌 노동의 質이 生産力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경제적 파탄을 自招하게 되었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의 非效率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專制的 정도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人民의 항거를 가속적으로 증대시켜 결국 自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레닌주의의 종말로 사회주의도 종말을 고했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의 歪曲이었지 社會主義 自體가 아니다. 레닌주의가 自滅한 것은 社會主義의 基本精神을 떠나 專制主義로 移行한데서 온 것이지 社會主義 그 자체에 대한 人民抵抗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人間의 삶의 조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특히 自給自足的 農村社會는 점차로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都市 속에 살게 되었다. 이러한 都市生活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私보다 공을 앞세우는 對應이 더 필요해져 가고 있다. 上下水道, 交通, 通信, 教育 등등 모든 영역에서 이제 公共化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21세기에 들어서면 社會主義的 處方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는 앞으로도 계속 生命을 가지는 이데올로기로 남을 것이다.

문제는 民主化에 있다. 社會主義든 資本主義이든 社會의 集團意思決定 過程이 民主化가 되면 문제가 없게 된다. 社會主義를 專制的으로 실시하려

했던데서 레닌주의는 反人類의 反動 이데올로기로 轉落했던 것이다. 社會生活이 모든 구성원에게 最大의 편의를 주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公共化해야 할 영역의 문제와 私에 남겨 두어야 할 문제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公共化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時代와 상황에 따라 公과 私의 理想的 配合點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政治란 시대와 상황에 맞는 公私조화점을 찾는 기술이다. 그리고 좋은 政治란 시대에 앞서가면서 그 배합점을 찾는 政治다. 그러한 좋은 政治는 社會構成員 모두의 참여로 意思決定을 하는 民主政治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歷史的 현실에서 實證的으로 發見하고 있다. 人間은 자기 스스로가 내린 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만을 덜 가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역시 民主主義 밖에는 더 나은 代案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레닌주의는 착취없는 인간사회라는 높은 理想을 내어 걸었던 政治理念이었지만 人間의 本性을 가볍게 보고 人間性을 制度에 맞추려는 무모한 노선을 걸다가 自滅하였다. 부족한 점이 많은 인간의 本性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바탕에서 政治理念을 구축하여야 오랜 생명을 가지는 政治理念으로 만들 수 있다.

레닌주의의 滅亡에서 우리는 하나의 教훈을 얻는다. 人間의 所望은 계속 변하지만 人間의 本性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다. 反人間的 이데올로기는 결국 自滅하고야 만다.